



##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 취약성을 포용한다. (Embrace vulnerability)

‘이제부터 모든 조명을 끄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다.’

종신서원에서 축하 카드 가운데 늘 기억하고 도전하게 해주었던 카드 중 하나였습니다.

올해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여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평화보다 전쟁을 선택한 나라들이 많아지고, 환경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정보기관의 독점이 거의 사라졌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더 다양하고 재미있게 신선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신장으로 인하여 이미지는 변하고 있으며 드디어 신데렐라 시대가 끝인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가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아도 되고, 취약한 슈퍼히어로가 유행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여러 도전을 던지고 있으며,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교회 시노달리타스로 인하여 세계 수도원들의 총장협회에서 새로운 제안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는 길에서 서로의 취약성을 수용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락지역(내부적, 외부적 안정감 지역)에서 취약성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너무 긴 시간 안락지역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멈추게 되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안락지역(Confort zone)<sup>1)</sup>에서 떠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의 지역과 배움에 지역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안락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는가요?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어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리 2, 6-8)

1) 안락지역(Confort zone) : 세소 고딘 (Seth Godin) CONFORT ZONE <https://blog.naver.com/autocad-plus/221671161179> (안락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

## 제24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 교육



9월 6일(수)~10월 11일(수) 매주 수요일 제24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14명의 교육생과 함께 한 이번 교육은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소개를 시작으로 다양한 강사님들의 교정사목 봉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진행되었고, 서울동부구치소 참관을 통하여 수용자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 미사를 마지막으로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실현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각 교정시설 추석 특별 간식 지원



추석을 맞이하여, 9월 22일(금) 서울남부구치소(2,300개), 서울남부교도소(1,400개), 9월 25일(월) 동부구치소(3,100개), 9월 26일(화) 서울구치소(3,250개)에 가톨릭 우리농 전통 약과와, 고봉중고등학교(220여 명) 떡볶이와 탕후루, 분류심사원(220개) 햄버거가 전달되었습니다. 추석 간식으로 조금이나마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서울구치소 여사 세례식



9월 26일(화) 서울구치소 여사에서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통신교리를 수료한 3명의 자매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봉사자와 함께 자리한 수용자들이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고, 베풀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사회사목국 직원 야유회



10월 13일(금) 사회사목국 14개 위원회의 직원들이 함께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위원회 직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우리는 도반(벗)입니다.

이미정 세라피나\_서울구치소 최고수 봉사자

2015년 여름 끝자락 무렵이었습니다. 교정봉사를 하시는 지인께서 종종 최고수 형제님들께서 보내신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해 주셨습니다. 저런 글을 쓰시는 분이 어찌다 그곳에 계시는 걸까?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기에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걸까? 자기 성찰의 글과 따뜻함과 자상함이 전해지는 편지글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20년 20일간 옥살이를 하셨던 고(故) 신영복 교수님께서서는 그의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교도소를 학교라고 하셨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흔쯤 된 죄수인데, 집도 절도 없어 접견(면회)도 오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접견 호출을 받게 됩니다. 본인도 동료 죄수들도 다 놀랐습니다. 죄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수가 두세 살 때쯤, 누이동생과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살길이 없어 어머니는 아이들을 삼촌 댁에 맡기고 돈 벌러 가셨다가 못 돌아오고, 결국 재가하게 되었습니다. 재가한 집에도 이미 어머니를 잃은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자기 자식은 키우지 못하고 전처가 낳은 자식을 키우며 살았답니다. 바로 그 아이가 나름대로 성장하여 교도소까지 면회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 속에 있고, 당신이 밖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수 형제님들의 편지글은 책에서 소개된 글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저의 편견을 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라는 저의 질문에 “궁금하면 네가 직접 만나보렴”이라는 말씀에 응답하면서 교정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서울구치소를 가던 기억은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뭔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도 받고, 기도도 하고, 매일 미사도 드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지만, 검문소를 지나면서 많이 긴장했던 제 모습이 선합니다. 철문들이 열리면서 들어가는데, 마지막 여름을 불태우던 계절이었는데도, 구치소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신부님과 동료 봉사자와 함께 교도관님의 뒤를 따라 들어갔던 만남의 방. 어색하게 인사하며 처음 대면한 형제님의 얼굴 뒤에서 광채가 보였습니다. 환한 얼굴에 맑은 눈빛, 미사 후에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형제님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사와 집, 집과 회사를 켓바퀴 돌며 살던 저는,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의 돌을 골라가며 발갈이를 한다고 하시는 형제님 말씀에 크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들은 서울구치소라고 하지 않고, 봉쇄수도원이라고 부릅니다. ‘청계수도원’. 형제님들은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봉사자들도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피해자와 수용자, 교도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 안에서 늘 함께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깨닫는, 우리는 도반(벗)입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죄를 씻으니’(이사 43,18-25) 생활 성가 가사 한 소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너의 갈라진 마음에,  
그 사막과 같은 땅에 길을 내고 큰 강을 내리라  
이미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시작했으니  
너의 죄를 씻으니 잊었으니 이미 너는 새롭다.”



## 호프니와 피느하스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호프니와 피느하스는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호프니는 ‘손바닥’이라는 뜻, 피느하스는 ‘신탁,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한 자들로서 주님을 알아 모시지 않았고, 백성과 관련된 사제들의 규정도 무시”(1사무 2,12-13)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제사를 드린 다음 고기를 삶고 있기만 하면, 사제의 시종은 살이 셋인 갈고리를 손에 들고,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도가니에 찢어 넣었다. 갈고리에 꿰혀 나오는 것은 무엇이나 사제가 제 것으로 가져갔다.(...)“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가져가겠소.”하였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이 젊은이들의 죄가 매우 커졌다. 그자들이 주님의 제물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1사무 2,13-14; 16-17)

호프니와 피느하스는 백성들이 하느님께 바친 제물을 제 것으로 가져가 착복, 횡령하는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짓을 저지르고,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한다는 소문”(1사무 2,22)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을 모독”(1사무 3,13)하였습니다.

나는 일찍이 네 집안과 네 조상의 집안에게 내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은 나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지만,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 때가 온다. 내가 너의 기운과 네 조상 집안의 기운을 꺾으리니, 네 집안에는 오래 사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한 너는 너의 경쟁자가 이스라엘에 내려진 온갖 복을 누리며 성소에서 봉직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다. 네 집안에는 오래 사는 자가 영영 없을 것이다.(...) 네 가족이 사람들의 칼에 맞아 다 죽을 것이다. 네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1사무 2,30-34)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느님 현존의 상징인 계약의 궤를 전장으로 모셔 오고, 사제인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함께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참패하고,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게 됩니다(1사무 4,11). 또한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역시 숨지게 됩니다(1사무 4,18). 이날 태어난 피느하스의 아들의 이름 이카봇이 무척이나 상징적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1사무 4,21).

호프니와 피느하스의 죄와 벌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성직자들, 종교인들의 재물과 성적인 탐욕들,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또한 신앙인 역시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삶 속에서 하느님의 규정을 잘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권력과 부를 얻으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의 부차적인 현세 이익을 누리려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반성하게 됩니다. 또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제정일치의 사회였고, 실제로 엘리가 판관으로 40년 동안 이끌었던(1사무 4,18) 지도자였음을 생각하면, 공동체 지도자 혹은 그 가족의 덕목 역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동체 공금이나 국민들의 세금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보다는, 사욕을 채우는 데 쓴다면, 호프니, 피느하스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엘리에게도 죄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죄악이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1사무 3,13)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세금을 유용하는 것, 학교 폭력,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지도자가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주권자인 국민, 감시자인 언론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느님께서도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겠지만(1사무 2,30 참조), 하느님보다는 하느님 이름으로 자신의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욕심만을 채운다면,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멀리받아 ‘이카봇’, 하느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 교정시설 창업 교육 수강 소감

- 예전에 중요시하지 않았던 창업에 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준비 과정, 사업계획서를 잘 계획하고 정확하게 세워서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창업에 대한 두려움 또한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경력단절자 처지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으로의 생각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취업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육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 내용의 참신함이 부족해지는 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소 후 사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거나 교도소에서 시기가 맞는 교육생에게 연계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와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변화되어 가는 사회 경제 분야에 걱정이 많았는데 강의를 듣고 많은 도움을 받고 새롭게 배워서 살아가는 데 큰 힘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교육 시간을 더 했으면 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소 후에,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우 만족한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창업 교육을 받으며 강의실도 훌륭하며, 살아있다는 도전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나 자신이 우울한 상태였으나 희망을 주는 말과 나 자신을 새로이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체로 강사님들이 되도록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잘하고 기억하기 쉽게 설명해서 수업을 잘 들었습니다.
- 저는 수용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고 착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수용자입니다. 그리고 수용 생활을 이후 출소 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이고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 창업 교육은 저한테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게 하는, 정말로 대단한 교육이었습니다. 강사분들과 교정 공무원들이 저희를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창업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창업자금을 받으면 정말로 인생의 참다운 삶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 전반적으로 강사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안하자면 현실적으로 창업 관련한 준비 과정을 예로 들어 교육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조금 더 시청각 자료가 풍부하면 좋을 듯합니다.
- 자영업에 대한 기본적인 창업 관련 자료나 강의 시간이 추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정시설 창업 교육을 받고 다양한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교육을 통해 출소 후 원하시는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 신부님께

+ 평화!

안녕하세요. 신부님! 잘 지내고 계신지 안부 편지 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답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느님의 보살핌으로 이송와서 적응하며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 2027년에는 한국에서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혹시 사제분들만 참여가 가능한 대회인가요? 만약 일반 신자들도 참여가 가능하다면 부족하지만, 저도 꼭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그때에는 저도 사회에 있을 때이겠지요!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신 '성령'의 뜻은 아주 잘 이해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영' 그리고 '보호자' 제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마음과 의지. 이 모든 행동과 믿음이 하느님의 영인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능한 것이겠지요? 항상 성령께서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계심을 느낄 때가 많은 요즘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이 생기면 그 이웃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고 참을 수 없이 화가 날 때는 일단 참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보려 해보기도 하고 악한 마음을 악으로 맞서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보려 애쓰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변화된 저의 행동과 마음이 분명 성령의 이끄심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목표를 하나씩 세워가며 그 목표들을 이루려고 무던히 노력 중입니다.

크게 3가지의 목표를 세웠는데, 첫 번째는 매일 신약성경 필사하기와 기도문 외우기이고, 두 번째는 독학학위제를 공부해서 경영학 또는 심리학 독학사 취득하기,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권의 책이라도 꼭 완독해서 독후감 쓰기, 이렇게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최대한 저의 능력과 노력으로 해낼 수 있을 법한 목표들을 세웠는데, 출소하기 전까지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달성하고 싶습니다.

신부님 바쁘신 와중에도 제 편지를 잊지 않으시고 답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미사드릴 때마다 매번 미사지향도 적어내고

신부님과 봉사자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느님께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저의 신앙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신부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2023.08.20.

김아네스 드림

\* 김천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 아네스 자매님이 송청섭 시몬 신부님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자매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2023년 12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카카오채널

### ● 행사 알림

- 11월 6일(월)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 광탄 나자렛 모원
- 11월 15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11월 17일(금)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9차 이사회



###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3/9/16~10/15)

2023년 9월~10월에는 강수경, 이예진 엘리사벳, 이혜린 소화데레사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윤상, 조정열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02-921-5094)

###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아래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